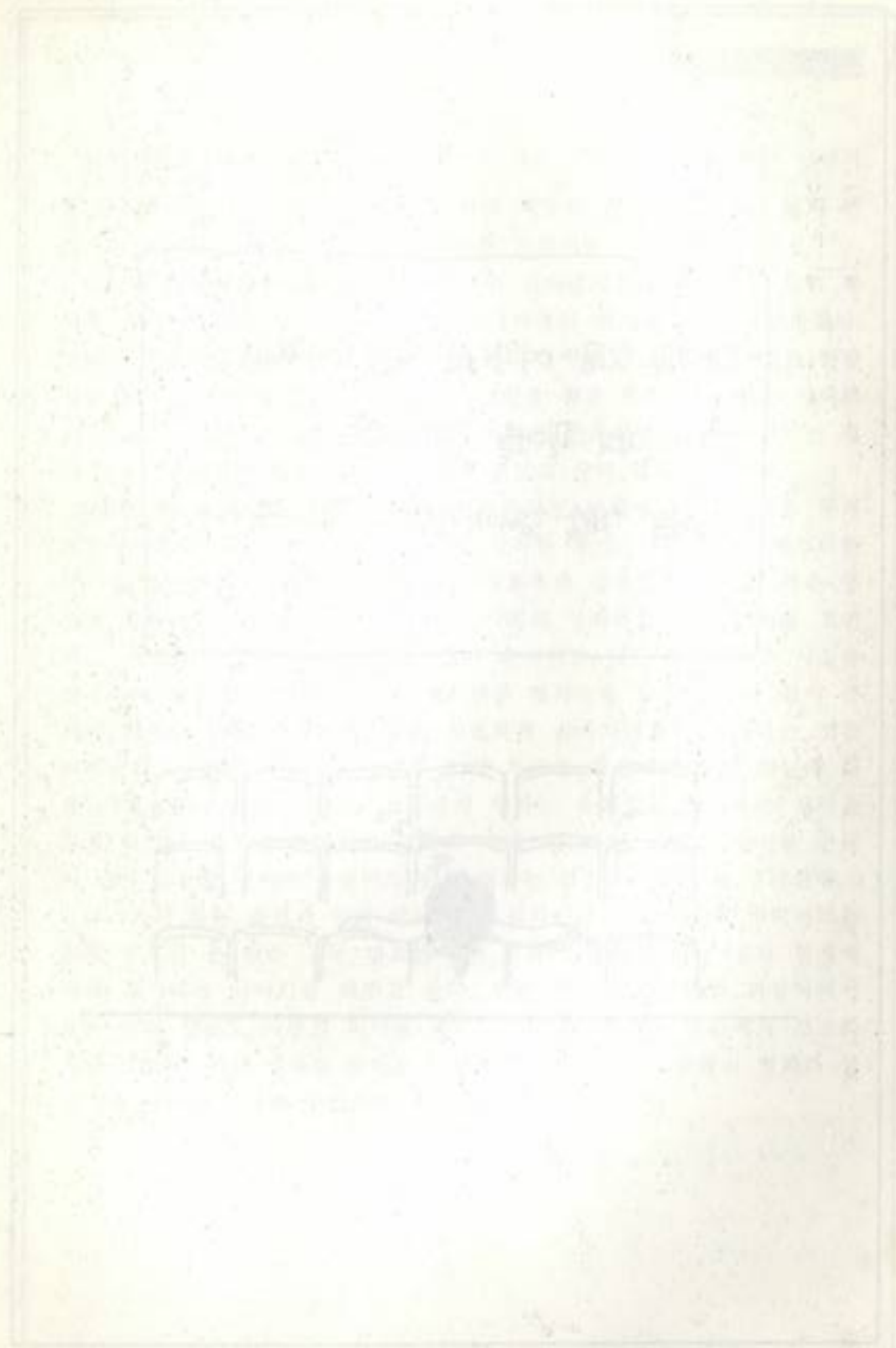




보통의 개구리, 하늘을 날다



2001년 3월
자치 문화제
한울타리
여성위원회
생활도서관
자치행동그룹
이화시네마떼끼



자치단위가 뭐시냐?

자치단위?

치밀어 오르는 열정이 있는 동기들과
단백한 선배들이 있는 곳. 그리고,
위로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공간.

이화의 자치단위는 자신이 주목한 주제에 관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관심있는 주제를 내 삶 속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새내기 + 현내기를 기다립니다.

자치단위 연석회의는..

자치단위들의 모임인 자치단위 연석회의는 개별자치단위의 상위 단위가 아닌, 각 자치단위들의 수평적인 모임입니다. 연석회의를 통해 자치단위들은 서로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통을 가져나갑니다. 또한 자치문화제와 같은 새내기 맞이 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11월 선거시에는 총학생회를 하고자 하는 선본들의 선거정책 비판 작업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위별 문화제 일정

이화통일운동본부 한/울/타/력

통일 만화전

-만화로 통일 보기

장소: 학생문화관 1층

기간: 3월 19일-23일

북녘 어린이 돕기

-게릴라 불량식품 팔기

자치단위 행사들을 주목하세요!

제6회 이화여성위원회

제 6회 페미니즘 문화제

<방자한 나의 육체-어쨌든 니가 상관할 바 아니지>

기간: 3월26일부터 30일까지 한 주 동안

장소: 이화 곳곳에서

앨범과 그림의 움직임은 실험장-생활도서관

새내기 모집 및 도서 판매전

기간: 3월 5일~16일

장소: 생활 도서관 (학생 문화관 242호)

문의: 3277-4709

자치행동그룹

3월달 새로운 강좌

"우리안의 파시즘"

1강(3월21일): 교육 속의 반공주의/짧은 이야기①'교육'

2강(3월22일): 가부장제와 군사 파시즘/짧은 이야기②'인터넷상의 검열'

일시: 3월 셋째주 21일, 22일

장소: 학생 문화관 4층

문의: 권한라 011-9651-8151 herrerre@freechal.com

새내기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단위별 문화제 일정

이화 시네마페스트

일시	7일(수)	8일(목)	9일(금)
상영작	와호장룡 -이 안-	하나 그리고 둘 -에드워드 양-	화양연화 -왕가위-

스크린에서 찾은 자유 -이화 시네마페스트 개관 영화제

장소: 학생 문화관 343호 시네마페스트

문의: 3277-4710 www.nkino.com/club/cithe

개관 영화제는 무료입니다.

자~01학번에게 인사

뿌직, 호새, 로빅, 거만, 수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한울타리가 대체 뭐하는 데야?

네. '한울타리'는 타이틀도 어마어마한 '이화통일운동본부 한/울/타/리'랍니다. 올해로 생기지는 5년째구요, 자치단위로는 3대째인 아직은 파릇파릇한 자치단위지요. '한울타리'라는 정겨운 이름 앞에 붙은 엄청난 타이틀 때문에 별걸음이 머뭇거리지시나요?

사실은 지금 한울타리인 우리도 그랬었죠(비밀인데..) 우리 모두 '난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한 몫 해야지'하고 무철한(?) 의식을 가지고 온 건 아니랍니다. 우리들은 '한울타리'에서 모집한 세미나에 왔다가, 또는 친구에 이끌려 왔다가 선배가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이런 모임이 좋아서 '한울타리' 식구로 눌러 앉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오세요.

한울타리를 하면서, 우리가 기획하고 실행했던 작지만 큰 정기행사와 일상 활동들은 참 새롭고 신기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한울타리'는 대학시절의 친구, 선배와의 관계, 지적인 호기심, 활동에 대한 갈망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구요.

자~그럼 한울타리는 주로 뭘 할까요?

평소에는 통일 외에도 다양한 주제들로 친구들과 세미나를 하죠. 그리고 대동제 때는 복nick어린이 돕기를 위한 바자회도 하구요, 정기행사로는 이화인 모두에게 열린 통일에 관한 공개세미나를 한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새내기 땐 생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물론 모든 행사가 다 성공한 것도, 활동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10명이 채 안되는 작은 공

동체가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 내 아이디어가, 내 의견이 이곳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참 좋았어요. '통일'이라는 거대 주제가 이렇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고, 이렇게 아기자기까지 한 작은 활동들로도 풀어갈 수 있다는 것도요.

01학번 새내기 여러분! 저희 한울타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찾는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통일'은 너무 멀다고 느껴지더라도, '한울타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나를 품어주고, 내 생각과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울타리가 여기 있습니다.

참, 그리고 뿌직, 거만, 호새, 수선, 로빅과 같은 한울타리 명도 부여하지요.

한울타리 방은요 학생문화관 219호구요, 전화는 4712랍니다.



경의선은 경제입니다

이야기 하나

내가 98학번... 4년하고 반쯤 된 일이다. 작문시간에 한 시간은 토론, 한 시간은 글쓰기를 했는데, 유전자 복제 찬반론, 혼전 성경험과 같은 50대 50의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주제였었다. 주제를 선정하는 어느 날, 누군가가 통일 찬반 논쟁을 제안했고, 다들 별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지라 시큰둥한 가운데, 나는 어느 한 쪽만 사람이 많으면 토론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대부분이 통일을 바라는 가운데 통일을 주제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선생님은 통일을 바라는 사람 손을 들어 보라 했다. 이럴 수가! 반이었다. 아직 어디에 표를 던질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다시 물어보면 달라질까야 라고 생각하기 무섭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는데...이런! 또 반이었다. 세어 볼 것도 없이 딱 반이었다.

결국 우리 토론을 했다. 상당수의 친구들이 북한사람들을 괴뢰군으로 본다는데 놀랐고, 그 괴뢰군이 우리를 치러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멸 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또 놀랐다. 우리가 반공교육을 통해 잘못 학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내 주장에 친구들은 우리가 배운게 잘못된 내용이었다면 대통령이 가만있었을 리 있냐했고,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반박에 그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통일을 위해 일할 임무를 거론했다. 셋! 고1 정치 수업의 헌법 단원이 원망스러웠다. 결국 우리의 통일엔 미국이라는 걸림돌이 있다는 씨도 안먹힐 엄청난 얘기까지 꺼내며 막다른 골목행을 자초했던 나는...토론 막바지에 이르러 울고 말았다. 내가 저주스러웠다.

이야기 둘

어려서부터 나는 영화를 참 열심히 봤다. 어느 날 가족들한테 헐리웃 액션 영화의 적(enemy)설정에 대해 설명하다 별 것 아니면서 꽤 별거인 발견을 하게 되었다. 이것들이 옛날 옛적 냉전시대에는 소련, 특히 KGB를 적으로 만들어놓더니, 냉전이 해체되자 지들 내부의 적, 또는 은퇴 후 솔로로 활동하는 각국 정보국 요원들을 두려운 대상으로 만들었다. 식상해진 걸까, 다양성의 추구일까? 미국으로 건너간 아일랜드 독립군 색출에 협조하며, 애꿎은 아랍인들·쿠바인들을 번번히 테러범으로 만들더니, 이젠 북한까지

전세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만들더라는 것이었다. 북한을 묘사 내지는 언급하는 헐리웃 영화가 7개정도... 그들에 따르면 우리 항시 휴전상태임을 인지하고 벌벌 떨며 지내야 하는 불쌍한 존재다. 과연 미국인들과 이 영화를 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할까? 북한사람들은 굶는다던데...내 주위의 대부분은, 아니 나는 전쟁의 위협같은거 모르고 사는데... 미사일 협상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얘기 아니던가? 우리가 분단 국가에서 살고있다고 자각하게끔 하는 것이 뭐가 있지? 그런데 민방위 훈련때 숨는 반공호가 아직도 있나?

이야기 셋

지난 여름, 미국의 한 교회연합의 초대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봤다며 요즘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냐고들 내게 물어왔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뤄진지 얼마 안되어서 그랬을까? 김정일이 그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인지 몰랐다면,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투옥되면서까지 통일운동을 해온 결실이라며, 김대중대통령이 대단하다며...마치 내가 김정일을 만난 듯, 내가 통일운동하다 감옥살이라도 한 듯... 꼭 내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예배 도중에 개인의 기도를 공유하는 시간엔 한 분이 일어나 남북한의 만남을 감탄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온 손님에 대한 접대용 기도였을까? 아니면 항상 우리의 통일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것일까? 어쨌든 정말 고맙던데? 한 번은 베를린에서 살던 사람(German-American)이라며 다가온 사람이 통일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며 그 과정 또한 무척 힘들겠지만, 언젠간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게 위로와 용기의 말까지 건네기도 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나는 분단국가에서 날아간 소녀였다.

우리는 우리가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음을 잊고 산다. 세계는 북한을 전쟁의 대상으로, 또는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때에 우리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산다. 속 편하다. 북한동포돕기 성금 안내도 되고, 부시 정부의 남북한관계에 대한 어거지 정책을 들어도 소화가 잘된다.

여성위원회는요,

여성들을 사랑해요,

성별역할을 무시하는 곳이죠.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없이 수다를 떨 수도 있죠,

회원자격이 필요 없는 자치단위랍니다.

...단지 '여성'이기만 하면 되죠.

이화 여성위원회는 이화 안에서 여성주의적 담론 생성을 모색하고 여성운동을 가져나가는 가치단위입니다. 여성인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이화 안의 작은 물결기를 독자적인 흐름으로 가져나가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일상으로부터 느끼는 억압에 대한 여성의 중얼거림이나 작은 몸짓 모두가 여성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거대한 모순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이제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억압적인 일상에 대한 작은 반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경험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운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위원회에서는 3월 마지막 주에 제 6회 페미니즘 문화제 "방자한 나의 육체-어쨌든 니가 상관할 바 아니지."에서 피임, 몸의 역사, 반성폭력학칙, 몸에 관련된 영화 등을 가지고 이화인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학생문화관 218호(3277-4708)로 오세요.

무엇보다 여성임에 자랑스러운 사람들, 여기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있는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공.간. 이화

남고 퀘퀘한 질문을 던져본다. 여성의 적은 여성인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며 고개를 내젓다가도 어느 순간 '그래 여성의 적은 여성이야'라고 되뇌었던 씁쓸한 기억이 있는가?

그러나 여성인 우리, 어느 때이고 나 아닌 다른 여성을 사랑할 것을 배워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여자들은 서로 뭉치질 못해', '여자들끼리 뭉하겠어'라는 가부장제의 뽕뽕한 주문 속에서 우리들 여성의 어우러짐은 끊임없이 의심되어 왔다. 우리들의 여성을 향한 관심은 소멸되어야 했다.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들의 연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그들을 교란시키듯, 이 땅의 가부장들은 여성들을 서로 싸우고 헐뜯게 했다.

그리고 여성은 오랫동안 남성을 통해서만 자기를 설명할 수 있었다. 결혼 후 이름을 상실하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려온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삶을 떠올려보자. 남자를 매개로 해야만 설명될 수 있는 여성들. 그 정체성의 불안함. 그러나 과감하게 남성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선상 속에서 계속 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화, 여대라는 공간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 넘는다. 이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화 캠퍼스를 넘어 여성들끼리 여성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성 공간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단순히 여성들이 모여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이 남성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스스로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여성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 또는 여대라는 공간은 남성 중심적 상징 체계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플랜카드를 걸며, 우리가 직접 사다리에 올라간다. 그런 우리는 여성이다.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라 믿어왔던 것들을 한다. 우리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한다. 우리가 좋아하고 따르고, 동일시하는 선배는 여성이며 지금 우리가 지지하는 우리의 후배도 동기도 여성이다. 이것이 가능한 공간, 여성공간 이화.

생활도서관은?

생활도서관을 아시나요? 중앙 도서관이랑 다른 점을 잘 모르겠다구요? 생활도서관은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치기구로써 학점을 잘 따거나 취직을 잘하기 위해 책을 보는 오늘날의 대학생들과 모습을 반성하고 인생 전반의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감각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라면 책이 있을텐데 어떤 책들이 있을 까요?

생활도서관에는 시사, 사회, 과학,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간물이 주로 비치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매주 마련되는 신간과 함께 있어 새롭고 신선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가 있는 시간에는 도서, 잡지의 열람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엔 자유롭게 이용, 학습 열람을 할 수 있어 이화인들에게 언제나 열린 공간입니다. 또한 새학기에 새롭게 변신한 생활도서관은 그 동안 불편했던 책상, 의자, 소파를 교체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서열람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언제나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열려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도서관이 중앙 도서관처럼 도서관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기 중에 한번씩 주제를 잡아 자료집을 내고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화제를 열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사들은 생활도서관이 정제된 도서관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교류하는 공간임을 알려면서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소개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학생문화관 242호에 있는 생활도서관의 문을 주저없이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도서관은 우리 모두가 주인인 공간입니다. 직접 운영으로 참여하여 해묵은 종이의 느낌이 나는 책들을 손수 정리해보기도 하고 막 배달되어온 신간들을 먼저 들추어보는 기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손으로 움직임이 더해지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여기 생활도서관에서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식과 정보의 창고인 책들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선배들, 동기들이 있는 곳,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골라읽기

-아직도 책 읽는 게 지루한가요?-

어느날부터가 누군가를 만나러, 혹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할 때면, 자연스럽게 커피숍을 찾게 되었다. 처음 커피숍에서 메뉴판을 보았을때는 '의외로' 다양한 커피의 종류에 내심 당황해서 제대로 고르기 어려워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런데 그 메뉴들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학교 앞에는 스타벅스를 선두로 새로운 타입의 커피전문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메뉴판은 더욱 가관이었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길고 다양한 이름에다가 사이즈까지 각각이라니. 여럿이 물려가서 제각각 주문하려니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은근히 고르는 재미를 선사하면서 그만큼 다양한 맛을 전해주어서 나름대로 매력있게 느껴지도 하는 것이었다. 그날그날의 기분과 따라, 입맛에 따라 '즐기면 되는 것'이다.

책도 마찬가지이다. '책'의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는 '두께도 두껍고, 글씨도 뽀뽀하며, 게다가 지루하기까지한 소설'의 모습일 것이다. 생각만해도 지루함이 밀려온다. 그러나 서점에 가서 느긋하게 20분이상 둘러보면, 스타벅스의 메뉴판만큼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맛깔스러워 보이는 책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책은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책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습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휴식으로서의 책'을 즐길 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한다'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생활도서관에서 뭐니뭐니해도 가장 인기있는 책은 단연 '씨네 21'이다. 휴식삼아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다. 영화정보도 얻으면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 책에 대한 거부감에 극도로 휩싸여 있다면 이러한 주제별 정간물부터 접근해보길 권한다. '씨네21'이나 'if' 정도는 무난하면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일 것이다. 여기서 조금더 사회적인 분야로 나아가면 '인물과 사상'이나 '말'. 이것까지 즐겁게 읽어나갈 수 있다면 이제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후진하여 조금 더

재미를 파보는 수 밖에 없다. 그 외 다양한 정간물을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 단계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수필, 동화류이다. 삽화, 사진과 곁들여 온온하게 읽을 수 있는 법정스님의 '오두막편지'라든지, 장자고상배의 그림의 곁들여진 '꼬마니콜라'나 '속 깊은 이성친구' 등의 책들은 부담없이 차를 마시며 즐기기에 좋은 책들이다. 읽고나면 기분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감성적이면서 잔잔한 소설이 필요하면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을, 깊이가 느껴지는 소설이 그리우면 신경숙의 '딸기밭'을, 크게 웃고 싶으면 '오디션'같은 만화책을(생도에는 없지만.. ^^;)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다양한 기분에 따라 각각에 대한 선택이 존재할 수 있다. 요즘에는 스트리트매거진에서 출발한 유형의 일명 문화정보지들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paper를 비롯하여 IN, 런치박스 등등 문화현상을 접해볼 수 있는 신선한 잡지들도 한가지 정도 취미를 들만하다.

이렇게 몇가지 예를 든 것은 거대한 책목록의 한귀퉁이에 지나지 않는다. 찬찬히 찾아본다면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거의 모든 책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무슨 커피를 마실지 고민하는 것처럼 무슨 책을 '즐거울' 것인지 한번쯤 고민해보자. 생각만큼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커피를 맛보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수도 있다!

- 99 국문 박민주



내가 꿈꿨던 공간
- (편안하고 깨끗한 새 책상
& 의자 등등..)



내가 원하던 것
- (선호대 등~)



내가 찾던 정보
- (일간 서적, 사회잡지 등..)

그래 바로 이곳이야!

학생문화관 242호
문의: 3277 - 4709

를루랄라, 당신이 원하는 자유, 자치행동그룹으로 오세요~

불안하다는 것은 아직 자유롭다는 것이며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행동한다는 것이다.

새내기 01학번 여러분께,

새로운 대학을 꿈꾸며, 자유로운 연대와 불합리한 사회에 날카로운 비수를 던지는 자율적 개인들의 모임, 자치행동그룹을 소개합니다.

위의 수식어들이 너무 추상적이라구요?

자치행동그룹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게릴라 비주류 언론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시절,

빡빡한 교실 안에서 숨도 쉬지 않고 씨내려갔던 우리들,

그곳에는 우리들은 '왜'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왜'와 '아니다'를 마음껏 말 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싶다.

홍석천의 커밍아웃, 군대내 성폭력 문제, 두발규제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속 시원히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토론이나 소통, 연대라는 말은 아직, 우리에게 어색하지만 답답한 가슴을 열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 '아니다'라는 나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자치행동그룹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자치행동그룹은 대학 내에 자유로운 소통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 학기에 한번씩 우리들이 관심있는 이야기를 실은 매체지 '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강의가 아닌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강좌를 기획하면서 이화에서 새로운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치행동그룹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먼저, '야'라는 매체지를 발간했습니다. 발간한지 하루만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매진되었구요.

break! ewha ideology(학교당국의 여성관 비판, 교육투쟁에 관한 이야기)
2000년 이화에 대한 제안(도서관을 개방하라, 예산자치제 공전에 대하여)
긴급진단(이화 현장활동에 관한 좌담회, 현장활동 참가자들의 이야기)
자치단위 탐방(이화 시네마테크 소개)

channel2000(비정규직에 대한 글, 검열에 대한 이야기)
등을 실었습니다. 또 3월달에 여러분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강좌를 이화인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지요. '미시 파시즘'이라는 주제로 곧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어떠세요? 저희 모임에 같이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 새내기
주저하지 마시고 자치행동그룹으로 오세요~
2001년에는 함께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들어갑시다.

자치행동그룹 : 학생문화관 427호
연락처: 이유림 019-686-9568 comcine@freechal.com
사이버 커뮤니티: www.freechal.com/ya2ya2

자치행동그룹이 01학번 새내기에게 드리는 짧은 편지

1. 슈팅스타+ 포스트맨 블루스 + 택시 운전사

언제나처럼 나는 터널을 들어가지
오늘을 살지 못하기에
그같은 꿈은 이제는 지나온 시간 속에
모두 던져 버리고서

나를봐 이렇게 어제로 돌아가고만 싶어
나를봐 이렇게 나에게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언니네 이발관의 '어제만난 슈팅스타' 중-

처음에 병을 알았을때 굉장했었어.
왜 나만 이런거냐고..
죽으려고 욕상에 올라 갔었어.
그런데..
라면이 먹고 싶어진 거야.
죽을건데 뭘 라면 하면서 스스로를 다그 쳤지만
라면 생각이 잊혀지질 않았어.
먹고 죽기로 하고 라면집에 달려갔어.
땀을 뻘뻘 흘리며 두 그릇이나 먹었어.

살아있으면 뭘가는 하는거야.
실수도 하겠지만,
그게 전진한다는 증거잖아.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단 나아.
오늘 만이 중요해,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잖아.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잖아.

난 내일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진 않아.
-포스트맨 블루스 중.

나는 바보였다. 증오의 사회에 무모하게 저항했던 바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존이었고 삶이었다. 나는 투철한 혁명가도 아니었다. 이론가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어떤 정치적 욕구도 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되새겼고 그에 충실하고자 했다. 나를 사랑하고 나 아닌 모든 나를 사랑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분열에 저항하여 하나로 살고 싶었다. 그것은 바로 내 가슴의 요구였다. 그랬이었다.

-홍세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중-

01학번 여러분 환영해요. 위의 음악, 영화, 책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뎌지지 말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요. 여러분들의 삶의 몰입이고 기쁨이고 축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남자? 여자?, 차별과 차이에 대한 이야기

흔히들 '남자답다' 라든가 '여자답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각각 어떤 상태를 일러 그리 말하는지 짐작이 갈꺼예요. 남녀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른 바 보수적인 본질주의의 입장을 경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남녀간의 차이가 선천적이며 숙명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수호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는 것들 중 하나였으며,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했지요.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성성/ 여성성을 넘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을 한번쯤 상상해보셨나요?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군요. 어렸을 때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여자는 이러저러 해야해'라는 말들 들은적이 있는지? 그 때 우린 어떤 반응을 보였었지? 사춘기 때,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여성으로서의 느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중, 고등학교 때 경험한 성적 편견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은 최근에 새내기인 당신에게 주변에서는 어떤 말들을 하는지, 그 중에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없었는지...

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군요. 기억에 남는 책 한권을 가지고 이야기

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갈리아의 딸들』-황금가지/ 게르트 브란튼베르그 지음/이라는 책인데요.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완전히 뒤바뀐 세상을 상상해 보라! 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소설은 여성이 현시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이갈리아라는 가상도시를 만들어내고, 차별받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남성에게 적용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상이 안되나요? 한 번 읽어보시길, 단 유의할 점은 이갈리아라는 공간이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아니라는 것!

"맨몸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생명은 소멸할 것이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여성에 대한 부당한 현실을 그대로 합축시킬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잠시나마 통쾌함을 느꼈었죠. 어떤 누군가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한 대화와의 만남

2001년 3월, 투명한 자유와 만나십시오

새로운 대학 문화를 모색하는 자치행동그룹

머뭇거림 STOP ~

자유를 위한 실험 GO



영화는?

루이 뤼미에르가 <기차의 도착 1895>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해서 영화관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래 영화는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으며 변모해 왔다. 이제는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가벼운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찍고 편집하여 혼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영화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은 '영화광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관심이 영화 쪽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 어떤 영화는 관객이 몇 백 만 명이 몰려들고, 대학에는 우후죽순처럼 영화 관련 학과가 개설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앞을 다투어 영화에 몸을 던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영화 보기는 너무 편중되어 있고 가십거리에 잘 휘둘린다. 하나의 유행으로서 영화가 '선택'된 것만 같다. 이제는 소문이 아닌 진정한 주체의 목소리가 녹아 있는 영화 담론을 형성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화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중요한 시도이다.

영화관이란?

영화의 역사 속에서 영화관은 때로 흥분과 놀라움의 공간이기도 했고 때로는 영화를 진지한 학문으로서 사유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특히 100년 남짓의 영화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던 1960년대의 앙팡 테리블enfant terrible이었던 누벨 바그 감독들은 그들에게 영화의 시작은 언제나 시네마테크 프랑스Cinémaèque Française라는 영화관이라고 말해왔다. 그것은 '영화계의 살아있는 신화'이라 할 수 있는 장 뤼크 고다르Jean-Luc Godard가 여타 공식적인 감투는 거절하면서도 시네마테크 프랑스의 운영위원은 아직까지도 맡고 있는 것에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곳은 1950년대 중반에 개관하여 필름 라이브러리(영화 박물관)로써 필름을 보존하고 많은 무명 영화 작가의 영화를 알렸으며 전세계 영화광들의 은신처가 되어 왔다.

각설하고, 영화관은 혼자서 오롯이 어둠 속에 남겨지는 2시간 동안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가져가면 된다. 마음을 줄이는 서스펜스와 스릴을 느껴도 좋고 슬픈 영화를 보면서 맘껏 눈물을 쏟으며 스트레스를 풀어도 좋은 공간인 것이다. 적어도 "너 왜 울어?"란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

이화 시네마테크

이화 시네마테크는 이러한 상황(105년의 영화 역사, 한국의 영화 상황)속에서 몇 가지 바람을 가지고 있다. 소박하게는 영화관으로서 관객들이 영화를 말 그대로 재밌게 보고 갔으면 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 다양한 영화를 보여주는 곳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여 "아-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와 좀 다른 영화도 있구나!"하고 관객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다.

좀 거창하게는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영화의 다름으로만이 아니라 같은 영화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잠깐! 여기서 이화 시네마테크에 대해서 소개해 보자면 94년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 주에 9회의 상시 상영을 해오고 있는 영상 자치단위이다. 학생문화관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입으로만 전해지는 '쌀 창고' 시절을 거쳐 현재는 약 150석의 좌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영관으로 학생 문화관 343호에 위치하고 있다. 수많은 이화 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 곳에서 다양한 영화(고전 영화, 예술 영화, 일본 영화, 재패니메이션...)들을 봐 왔다.

운영위원이 되고 싶어요?

운영위원은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면접으로 3월 말에 선발합니다. 선발이 되면 4월에 영화에 대한 세미나를 재밌게 하고 즐거운(?) 축제(대동제)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새내기 여러분! 여기가 바로 당신이 바라던 공간입니다. 영화가 있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화 시네마테크는 학생 문화관 343호(조흥 은행쪽 계단으로 올라오세요!)에 있구요, 전화는 3277-4710입니다. 사이버 커뮤니티 주소는 www.nkino.com/club/cithe로 이 곳에 오시면 이화 시네마테크와 그 밖에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와 2001학번, 2001학번과 영화. 두 개의 키워드를 두고 무슨 이야기를 풀어내야 할 지 약간 고민했었다. 결국 처음의 흔적을 알 수도 없게 변해버린 헝거워진 옷가지같은 글을 써내려 가겠지만.

건고하게 쌓아올린 대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버텨내던 시간 속에서, 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에 대해 낙담하였다. 그리고 직소퍼즐을 맞추어 나가듯 빈틈없이 짜여진 구조와 틀에 대한 반항심을 누르고, 존재에 대해 고민하며, 스크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하며 영화를 보았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반복적인 일상에 치이는 것이 지긋지긋해져서 일상과 다른 세계를 엿보고 싶어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작은 위로를 주었고, 그러한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대학이라는 거대한 이름 안에 안착한 후에, 나는 시네마메끄라는 공간을 발견하였다. 그 공간에서 접한 영화들과 감독들은 영화의 작은 동선과 장면에도 미학을 부여하고, 삶과 사회와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며, 영화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무엇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다른 시각을 제시해준 영화들을 보며 그들과 같이 존재와 사회에 대해 생각하며, 삶은 치열하게 살아가야함을 느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단지 그들에게 약간의 지적 자극을 받으며 그들의 재능에 대해 시기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영화는 유희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즐기지 않았다면 영화에 대해 고민하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지 않았을 것이며 움직이고 있는 영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라카미 류는 즐겁게 살지 않는 것은 최악이라고 말했었다. 대학이라는 곳에 일으켜 온 것은 모두 다르겠지만, 각자가 찾으려 하는 것과 현재에 대해 즐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또한 폭신하고 안락한 관람석에서 보는 팝콘 무비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까운 공간에서 생소하지만 새로운, 지난 세대를 살아오고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저희는 지금 여왕님을 수행중이지요!
단 한명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상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쭉~욱~!

